東亞日報 夕刊 五月九日(土)

"日中平和는 不可能 蘇中同盟締結이 急務"

英米의 極東進出도 企待

馮玉祥氏, 記者團에 言明

【上海九日發同盟】九日發行의 대일리·뉴스紙는 南京特電으로 同紙特派員과 馮玉祥氏와의 會見記를 揭載하고 同記事에 依하면 馮玉祥氏는 右會見에 際하야 抗日的論調의 意見을 左記와 如히 聲明하엿다고 報道하고잇다

中國과 日本과의 平和는 빌서 不可能하다 日本의 經濟的、政治的、軍事的進擊에 對하야 如何히 抗할까가 今日 愛國 中國國民의 專心考究할 問題다 余는 極東에서 英、蘇、米各國政府가 共同行動에 出하기를 바란다 吾人의 取할 對日方策은 左와 五項이다

一、蘇中同盟의 締結

一、中國의 愛國民衆의 抗日運動擴張

一、中國民衆의 武器整備

一、中國全土內民權의 保證

一、南京政府의 共產黨討伐即時中止

(以上 馮玉祥氏)

그런데 馮玉祥氏는 去六日 有田外相談話에서 行한 外交問題政府方針을 評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日本의 대중政이하는 對中要求를 受諾하면 中國은 日本의 屬國이 되고 말것이다 그러므로 中國으로서는 日本의 要求에는 絕對로 服할수없다

日蘇關係를 重視

現內閣의 對中經濟政策도 質問

衆院豫算總會(第二日)

【東京電話同盟】衆議院豫算總會 二日은 午前九時十一分 開會 齋藤隆夫氏(民政)로부터 有田外相에 對한 質問이 開始되었다 ...

[illegible]

質問戰深刻化

政府側事態의 推移를 重大視

馬場財政策도 再檢討

【東京電話同盟】衆議院本會議에서의 國務大臣의 演說에 對한 質疑는 八日의 國民同盟 ... 各派가 一巡을 終了하엿으므로 이로써 中止하고 議場에서 十一日까지 열리는 豫算總會에 集中하게 되엿다 ... 九日의 衆議院本會議에서는 政府提出法案 二十八件을 順次上程하야 ... 하게되엿다

[illegible]

山西進出을 企圖

細胞扶植을 完成코

最近、共軍의 新計劃

【北平八日發同盟】山西各地에 分散한 赤化工作의 完成을 期하야 永久的으로 ...

米海軍豫算案 上院可決

【워싱톤八日發同盟】米國上院은 五億二千九百萬弗의 海軍豫算案을 八日可決하엿다 ...

新海軍條約

來週中上院에 提出

【워싱톤八日發同盟】루스벨트大統領은 今日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新海軍條約을 來週中에 上院에 提出할터이라고 말하엿다

比島大統領 近間訪日?

【마닐라八日發同盟】比島聯邦大統領 케손氏는 八日 新聞記者團과의 會見에서 近間 日本訪問의 意向이 잇는뜻을 發表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

"個人보다 法人에"

不動產보다 動產에 置重

稅制整理의 目標

[illegible]

貴院特別委員會서 可決된 法律案

一、大正十二年 法律 第五十二號中改正法律案

一、農村負債整理組合法中改正法律案

一、貯蓄銀行法中 改正法律案

一、昭和九年 法律 第四十五號中改正法律案

一、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一、日本銀行特別融通及損失補償法中改正法律案

一、昭和十一年勅令第十八號

一、昭和十一年勅令第二十一號

貴院本會議

【東京電話同盟】貴院第三日의 貴族院本會議는 九日午前十時七分 ... 開會 ... 十一時五十分休憩

對中政策을 確立

駐中川越新大使에게 訓令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八日 川越新駐中大使를 中心으로 ... 外交一元化의 實을 擧하라고 訓令하엿다 ...

議會演說의 中繼放送建議

社會大衆黨提案

【東京電話同盟】社會大衆黨은 八日 衆議院事務局에 議會演說의 中繼放送에 關한 建議案을 提出하엿다

公債法律案

衆議院에 提出

【東京電話同盟】政府는 昭和十一年度一般會計歲出의 財源에 充當하기爲하야 總額 五億一千三百萬圓의 歲入缺陷補塡公債를 發行하는 公債法律案을 八日衆議院에 提出하엿다

伊國의 難關은 今後도 尙存

首都遂陷落에

【三】 高永煥

[illegible]

伊太利首相 무쏘리니氏

에國交通의 中心인 하라르 市遂陷落

伊國의 軍事行動은 거의 完了

【로마八日發同盟】伊國政府에서 公表한바에 依하면 伊國軍은 八日 하라르市를 占領하엿다 하라르市는 에國交通의 中心이요 重要都市인데 同市占領에 依하야 伊國軍의 軍事行動은 거의 完了하엿다고 보인다

反滿軍의 引渡를 蘇聯側에 要求

滿洲外交部에서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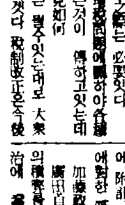
注射로안풀리는 梅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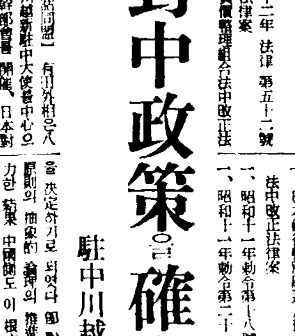
酒、煙草의 毒과 얼리면 「瘀血」이 되어 上氣、眩暈、吹出物로 고생

耳鳴、肩臂痛이 난다

瘀血(오래된病毒)을 없새면 無毒이 되어 몰라볼만치 튼튼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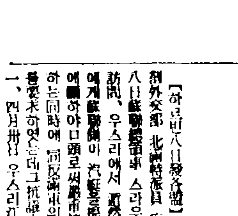
瘀血療法創見者 前警視廳 吉原病院 小屋良明先生談





頭重과 耳鳴、肩臂痛도 낫고 惡性梅毒이 매우 快差해

熊本縣 田口良一



古醫學에서 新發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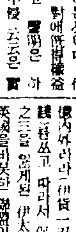
排使의 變色과 瘀血

[illegible]

排毒、瘀血에 굉장한 好評

前警視廳 吉原病院 小屋良明先生創製

フルチ錠



古醫學에서 新發見 病毒排除 血液循環と瘀血療法

必讀 (四六判五十頁) 無代進呈

申込所 東京市 古醫學研究所

ClibPDF - www.fastio.com

米突制實施以來 運轉手不平囂囂

一致結束코 總罷業의 低氣壓

保安課長과 一問一答

五월一일부터 택시에—타제가 실시된이후 운전수들의 수입이 종래보다 격감되는데서 생활보장의 불안을느끼게되는 운전수들은 이것에대한대책을 강구코저 굳건한단체를 결성하기위하야 八일오후五시에는 부내연건정(蓮建町)예배당에서 총회를 열으랴다가 종로서(鍾路署)의 중지로 유회가되고 말엇고 또한부내서너곳의 택시 운전수들은 이미총파업까지 일으키고잇는중이며 앞으로 六百명의 부내운전수들이 어느때총파업을 단행할는지 모를만큼 그들사이에는 상당한동요의 빛이 보이고잇다.

이와같이 운전수들의 생활보장을 부르짖고 바야흐로 험악하게될는지도 모르는 사태에 직면하고잇는 경기도 조보안과장(趙保安課長)과 일문일답한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問、메—타제 실시이후의 성적은 어떠가

答、예상보다는 양호하다。다만 요금과 영수증의 불일치가되는 경우가 가끔잇는 사실이다。

問、운전수의 수입이 종래보다 격감된것은 사실이 아닌가

答、그것은 도중 승차를 시키고 요금을 운전수 혼자가 먹을때보다 수입이 만할수나 이것은 정당한 수입이 아님으로 우리로서 승인할수 없다。

問、그러나 종래 여러가지를 무시하고 개정된 수입이라 운전수들은 이수입을 표준으로 생활수준도 거이 확립되다싶이 햇든데 이제와서 갑자기 격감되고보니 생활상의 위협을 느끼게될것이 아닌가?

答、그러니까 이번에 운전수대우 개선의 기준을 발표하엿다。즉 종래에는 노동이 너무 과하고 요금이 八—十원이라 거스름돈 팁이 잇섯든것이 인제 없게되고 대우가 냉정한것을 고려해가지고 그것을 발표한것이다.

問、일급과 월급의 표준은 없는가?

答、영업자의 임의다。

問、그러면 그들의 과로한 노동으로 개근은 불가능하니 개근수당은 유명무실이 아닌가?

答、이번에는 공휴일제도도 잇으니 전보다 나을줄 믿는다。

問、어째서 근무시간의 표준을 세우지 안햇는가?

答、그것은 사영업자의 영업상태가 불일치함으로 곤난하다。

問、근무시간을 제정하고 그이상 근무할때에는 한번 운전하는데 수당이 얼마라는것만 제정하면 조치 안흘까?

答、그것은 영업자의 입장으로 볼때 너무도 불가능한일이다。일정한 근무시간을 두자면 운전수가 자동차대수의 배는잇어야할것이다。

問、인제는 도중승차를 아니시키니 일반손에게 불편하지안나?

答、그것은 바람에 영업자가 거래체를 우선하라고 시키는것이다。

問、운전수의 단체를 필요로인정하지않는가?

答、종래 운전수의 단체가잇으니 개량이면 조흘것이다。

問、그러나 이번의 총회를 중지시켯다니 무슨 필요일까?

答、글쎄 나는 모르겟다。

問、이번발표한운전수 대우기준에 운전수들의 불평이 만흘모양인데 앞으로 개정할의사는 없는가?

答、할수없다。

問、앞으로 운전수들의 총파업이 일어나지안흘까?

答、절대로 없다고 생각한다。

窮民에白米分給【남해】

남해군 삼동면 봉현리(南海郡三東面鳳峴里)천구장병위(川原長兵衛)씨는 병으로 신음하다가 지난二十七일에 사망하엿다는데 동리빈민과 신세를 다대히 입엇으니 백미一두식을 분급하라고 유족에게 유언하엿다하야 그유족이 빈민三十七호에 한말식 난우어주엇다 한다

過勞의 事故

街燈의 鐵柱와 衝突

車體大破、助手折齒

◇原因은 運轉手의 睡眠不足

경성시내 택시운전수의과로(過勞)가사회문제로제동되고、대우개선이 제창되는이때 또다시극도의피곤으로 인하야 운전중에졸다가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발생하엿다。

九일 오전五시十분 황금정(黃金町)三정목三四 신천대(辛千代)의 택시 경(京)九一二二 오뿔 운전수 나영식(羅永植)(二○)이 운전해 가지고 봉정(蓬町)정목으로 손님을 태우려 가다가 포도(舖道)옆에 세워놓은 가등(街燈)쇠기둥을 드려받아 자동차 전면을 파손하고 같이 탓던 조수(助手)신재범(愼載範)(二○)은 얼굴에 타상을 당하고 앞니三개가 부러섯다고 한다.

충돌된 원인은 운전수 나영식이 밤새도록 사용운전하고 수면부족에 빠져재다시 사람을 운전하다가 고만 조름을 견디지못하야 핸들을잡고진행하면서조느라고앞을 내다보지못한 까닭이라고한다.

□…90 봄뒤에 살지는 봄미나리…【今日東大門外에서】

激增하는 小作爭議

三月一個月에만 調停申請八百二十七件

今春以來未決裁千二百餘件

(小作調停令)를 개정한후에도 조선의 소작쟁의와 경향과 아울러 무력한 소작조정령 실시후의 소작조정을 신청하는건수가 또한 격증되고잇는것이다.

특히 농경기를 앞둔 지난三월중의 소작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八百二十七건에 달하야 전달에서 미결체로서 넘어온 六百十一건을 합하면 실로 一千四百三十八건이 엇다。

그중에서 소작위원회의 전해로써 성립된것이 百二十四건、불성립이 十六건、기타五十二건、모두百九十二건이다。

그리고 각재판소의 조정으로 성립된것이 二건、불성립이 一건 각하二건、취하가 百四十二건이 송가타가 四十六건、모두 百九十三건이엇는데 미결체가 千二百四十五건이엇다。

그의신청은 지주가 四건、소작인이 八百二十三건이엇는데 이로보면 지주의 횡포로 불평이 소작인에 잇는것을 알수잇다。

그리고 사건별로보면 소작권이 八百四건、소작지 소작료로 밤미암은것이 八百四건、동으로 밤미암은것이 二十三건이엇다。

그로 잡히엇는데 그는지난 소화八년칠도성을 뒤시한이래 최근은 생활이 곤궁하고잇던바 헤지고실을짓던합을 벗고 그같이 범행한듯 싶다고 한다。

解職에含冤코 電氣局長刺殺

【동경전화】 철도성 전기국장(鐵道省電氣局長) 고천광조(古川光告)씨는 九일오전一시五十분국장실에서 원철도기사 전구국차랑(田口國次郞)(三○)에게 일본도로 찔리어 직사하엿다。 범인은 곧

今春、渡滿者만 十萬名을突破

所謂勞動移民도二千二百名

春耕期에도流離群

정든고향도 봄붙잇이 없어 산설고 물서른 이향으로 이국으로 유리하는 동포들은 농경기를 앞둔二、三월을 최절정으로 씨뿌리기에 바쁜지금까지도 오히려계속되고 잇다고 한다。

이에 정확한수효를 모르나 수일전 총독부외사과에 달한정보에 의하면 금년二월부터 四월하순까지 조선서 합이빈(哈爾賓)일본총영사관내에 이주한 조선농민만도 一萬인을 초과하고 잇다고한다。

그리하야 금춘에 조선에서전만주에 이주한 집단이민 또는 개인의 자유이민등을 합하면 무려 十萬인에 달하리라고 한다。

그리고 조선안에서도 남조선방면에서 서북조선방면으로 이주한 소위로동이민도 벌서 二千二百명은 초과하고잇다고 한다。

一년의 생계를 세우는 가장중요한 이봄철에 생활의근본적중요를 빼앗는 ... 현상은 민족적으로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중대문제라하야 크게 주목을 끌고잇다。

朝共靑盟關係 金明吉에三年

【함흥】 제一차와제二차 조선공산청년동맹(朝鮮共産青年同盟)재건사건에 연좌하엿다가 피고의경계망을피하야 만리 간도(間島)에 망명하엿다가 영사관경찰에 검거되어 압송된 咸州郡州北面 金明吉(二七)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의 제一회공판은 지난六일 오후一시부터 함흥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미전(米田)판사주심 대정(大町)검사입회로 개정되어 심리가 끝난다음 임외검사로부터 三년징역의 구형이잇엇고 언도공판은 오는十五일로 결정 되엇다한다。

小荒溝에朝鮮○○團 五名을毆打拉去

◇官憲側의 密偵이라고◇

二名에게七百圓걸어

七일 오전十시경에 평북벽동군 송서면 오서동(平北碧潼郡松西面五西洞)강봉신(姜鳳信)외 四명은 동지 대안、관전현 제오구 소황구(寬甸縣第五區小荒溝) 만주인 장운량(張雲良)의 집앞에서 조선인 七명의 무장단을 만나 일본관헌의 밀정이라는 혐의로써 구타를 당하며 어데로인지 잡혀갓다 한다。

무장단은 전기 五명을 오지로 끌고가서 五명중 강봉신과 공봉익(孔鳳翊)등의 二명을 남겨두고 그외三명은 돌려보내는 동시에 남어잇는 二명의 몸값으로 전기 강봉신에 대하야는 二百원을 공봉익에 대하야는 五百원을식삭강요하고 잇다고 한다。 그리하야 그들의 가족과 경찰방면에서는 전기二명에 대한구출책을 목하 강구중이라고 한다。

天氣豫報

◇槪況 高氣壓은 日本內地로부터 朝鮮에擴大、低氣壓은 沖縄의 南과 天津附近에잇어 共히東進中 北滿도氣壓이 低하다

◇豫報 京畿道內大氣豫報 京城地方 今夜는曇、어쩌면雨、 滿洲은晴、朝鮮은曇、北朝鮮에 小雨가 잇다。

昨日氣溫 最高 一九度九 最低 一一度六

農貧融通된移民村에

反滿軍襲擊頻發

敦化附近에서十九名을拉去

當局은事態를嚴戒中

방금 농경기를 임박하야 농자금이 융통되고잇는 재만 조선농민부락에는 그를 목표로하는 반만군의 습격이 빈발하고 잇다한다。

九일 총독부외사과에 달한 정보에 의하면 八일 오후 十一시경에 길림성 돈화(吉林省敦化)서남방 조선인부락에 반만군二十명이 습격하야 조선인 十九명을 잡어가는동시에 금품다수를 약탈하여 가지고 다라낫다。

동부락에는 궁민구제사업비와 농경자금으로 대부할 현금三千여원이 잇엇으나 그의 피해는 없엇다 한다。

그러나 동지경찰측에서는 전만조선농민부락에 산포될 각지금융회를 통하야 나오는 농자대부금이 三百五十여만원에달하야 그밖에 개인채의 융통액을 합하야 무려 千萬여원이 이시기에 농가에 퍼지게되므로 그의 강탈를 목적으로한 반만적의 습격을 비상히 경계하고 잇다고 한다。

移動班組織

鴨江岸警戒中

최근 국경방면의 반만군의출몰이 빈번함으로 평북경찰부에서는 국경의 이동경찰반을 조직하여가지고 수일전부터 윤선공사(輪船公司)의 비행선(飛行船)으로압록강(鴨綠江)강안경계를 실시 하엿다한다。

西小門町에乞人屍

서소문정 정동보교 서소문정 ... 명남으로 유명하던 지난六일오후 九시경에는 또 거지시체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견되엇다한다。 소관 서대문서에서는 즉시검시한결과 다년간 신경염(神經炎)으로 고생하여오다가 근년에와서 병세가 악화되어 마츰내 죽게되엇다하며 남은 성명과 주소도없어 시체는 경성부에 부탁하엿다 한다。

朝鮮人著作權을 國際的으로保護

베르다條約改訂압두고

內務省員이朝鮮와서調査할터

외국단문文壇또는화단(畵壇)에진출하는 조선인의 문학또는 미술작품의 국제저작권보호(國際著作權保護)에대하야 불원간 내무성(內務省)에서 조선총독부와 타합하기로되엇다한다。 이것은 조선인의 문학 또는 미술작품이 외국음으로 번역이나 복사(複寫)되어 외국작품이 조선문으로 번역되는경도 한하저서 『베르다』조약(條約)에의한 국제저작권보호가 시행되고잇는데 이베르다 조약의 개정회의(改正會議)가 오는九월 백이의(白耳義)부랏셀에서 개최하게되므로 그회의를앞두고 조선의 저작권에관한 조사가 필요하게된 까닭이라고한다。

江華에強盜團

百卄圓을奪去

警察은犯人을嚴探中

七일 오후 九시경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江華郡佛恩面德城里)四五번지에 사는 엣시공 송병문(宋炳文)(二八)의 안해 김음전(金音全)(二○)이 자는방에 二인조강도가 습격하야 한명은 김음전에게 이불을 씨우고 반항을하니 동무에 올라타고는 『내놓라』 할어온 배(船)대신이 잇으냐니 내어노라』고위협하는사이에 다른한명은 손전등을 가지고 실내를 살살이 뒤저 괴리쾌속(?)이 감첫든 一百二十四원을 찾어가지고 어둠속으로 다라나 버렷다는데 피해자는 생명만은 건지 배반돈을 찾어달라고 경찰에 고소하여왓다 한다。

尙州大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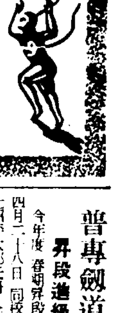
【상주지국전보】 九일아침四시경 상주읍(尙州邑) 남정(南町) 유이발소(劉理髮所)로부터 불이 일어나 약점、여사부속、인쇄소 등 三동五호가 전소되고 몽五시경에 진화되엇는데 인명에는 나행히 피해가없으며 손해와원인은 목하 조사중이다。

嚴舜奉上告 李圭虎服役

복심에서도 사형(死刑)판결을 받은 유길공사(有吉公使)모살사건의 엄순봉(嚴舜奉)은 상고수속을 취하야 九일 사건기록이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엇다。

그와함께 一심二심에 함께 범정에섯던 이규호(李圭虎)는 十三년징역 판결에대하야상고치를 포기하고 복역하기로 되엇다한다。

스포—츠



對延專蹴球에 普專軍優勝

朝鮮蹴球協會主催의 第二回全朝鮮蹴球選手權大會의 第二日 普專對延專의 決勝戰은 九日午後一時分京城運動場에서 審判 趙???氏、普專キツクオフ로 開始한바 一對零으로 普專軍드디어 優勝하엿다

(제임九十分間)

普專 1 (1−0 / 0−0) 0 延專

【戰況】 前半兩軍 ... 對零、後半 一十一分에 普專 ... 라이트 宋基命의 ... 으로 普專 一點를 너은채 兩軍得點이 없이 一對零으로 普專優勝하엿다。

【延專】 ... (閉戰二時五十五分)

殖銀4A 鐵道3

京城實業野球리의 鐵道對殖銀戰은 九日午後一時五分 京城運動場에서 佐田(球)、石井、津島、大島(壘)四氏審判、鐵道先攻으로 開始한바 四A對三으로殖銀勝(閉戰二時五十二分) 投捕(鐵)稻垣—舛田(殖)吉本、李榮敏—小笠原

得點	(殖)	0	0	0	0	0	3	1	0	A
	(鐵)	0	0	2	0	0	0	0	1	0

法政7A 東大4

【東京發電話】 東京六大學野球리그의 東法戰은 九日午後零時二十分 神宮外苑球場에서 伊丹(球)、關口、西村、鐵村(壘)四氏審判、東大先攻으로 開始한바 七A對四로法政勝 (閉戰二時二十五分) 投捕(東)久保田—綠川(法)三森、藤田

得點	(法)	0	0	3	0	0	0	0	4	—	7
	(東)	0	0	0	2	0	0	0	2	—	4

普專劍道部 昇段進級者發表

今年度 春期昇段昇級戰을 지난 四月二十八日 同校道場에서 師範上沼平太郞氏와 李???氏 審判下에 盛大히 擧行한바 成績은 다음과같다고한다。

二段 朴???
初段 ...
一級 ...
二級 ...
三級 ...
四級 ...
五級 ...

第十三回學生卓球

朝鮮學生卓球聯盟의 今年度第十三回 全朝鮮學生卓球大會는 ...

都市對抗野球卄圓

大每、東日主催의 第十回都市對抗野球大會는 八月一日부터 八日까지 東京에서 열리는데 從來豫選區 十六地方이든것을 今年부터 二十地區로 늘리다고 한다。

日本庭球中國에

【東京電話】 日本庭球協會에서는 六月中 ... 上海日本人倶樂部招聘의 選手派遣은 ... 中野文照(法政)、村上、三浦 ...

◇英컵비佛國과 ...

月刊ロシヤ 五月號 定價三十五錢
申込所 京城・西小門通り 日蘇通信朝鮮支社

特輯 東と西のソ聯邦の政局 ... 米田實
ロシヤと西歐との協調 ... 長谷川了
東亞に於ける蘇聯邦の地位
ソ聯邦國家計劃經濟 ... 近藤義晴
ソ蒙相互援助議定書
廣田內閣の對蘇方針 ... 諸名家
征服され行く北氷洋 ... 黑田乙吉
宗教眼から見たソ聯 ... 太田覺眠
ソ聯學生の友愛觀 ... 大西禎二
天津をめぐる北支動向 ... 高橋利雄
ソ聯政策と朝鮮 ... 龜井秀雄
露都二題 モスクワを語る ... 十川正夫 浦潮斯德放談 ... 長尾博
スターリン・ハワード一問一答錄
國境悲歌 ... 伊藤和夫
五・一 ロシヤ文學の五月 ... 米川正夫 農家の五月 ... 細井夕霞
のシ 復活祭前後 ... 柏木孤雁
・ヤ シベリヤのメーデー ... 大谷二郎
◇長嶺子事件の眞相◇
シベリヤ放浪記 ... 濱口由二郎
韃靼の掟 ... 木々高太郎
蘇聯邦要覽 ... 定價五十錢
發行所 日蘇通信社 本社 ... 支社・大阪・哈爾賓・京城

認可電醫 養成 朝鮮唯一

● 物理醫療士 責任教授 最新物療全科教授。院長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 ... 朝鮮高等電醫講習院

女教員採用

東亞案內

恩給 ... 鄭商會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年期藥 百補花 一劑十圓 京城堅志町 平和堂

皮膚泌尿花柳病 醫學博士 渡邊晋 京城黃金町

雨衣 女子의사랑하는 우장옷은 준비되엇습니까 雨季는일로부터올시다 朝鮮防水布製造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株式會社 海東銀行 頭取 金季洙 支店所在地 海州

代理店至急募集 十五種人票 ユウ・エス・ミシン フラザー・ミシン 型錄規定書申込次第進呈 大邱府本町一丁目 日米ミシン商會 電話一五○六 振替釜山六二五九

空中窒素利用 世界的大發明 肥料素 (名譽賞金牌受領) 亞細亞商工會社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어린이日曜

위대한 어머니사랑 오늘은「어머니날」

오늘만이라도 어머니를 도읍시다

어머님의 귀한사랑! 아무것으로 바꾸지못할 보배는 어머님의 사랑입니다。어머님의 사랑은 대로 무보수적입니다。현명한 시를 거느리고 훌륭한마니에 와우할수잇는 장소이라도 또는 세상에 제이니 무도한 도적이라도 어머님의사랑에는 어엿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것입니다。

세상에 못된놈이라도 위하야줌고 울분하나는 오직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무쪼기없이 받어왓고 또 그리위대한품도 잇는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야 애를 우는날이 얼마라면 자식은 어머니를 위하야 얼려하는 생각이 하로에 측량할것이나 되엇는가를 생각하면 과연 부끄럽지 안을수없습니다。

어러한 위대한 어머님의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려는「어머니날」이 과연 의미잇게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엿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잇는 웹스터란 곳에서 교회에 열심으로 다니든 짜비스라는 여자가 잇엇으니 그는 一千八百六년간이나 그교회의 주일학교선생으로 여러자녀들의 친어머니 처럼존경을 받고 사랑하엿더니 그여사가 죽으매 교회에서 성대히 추도회를 열엇을때 會葬에씨힌 그의딸 안나는 그때제일 많게 피엿든 카네숀 한다발을 사가지고와서 그곳에 모힌 사람들에게 하나식 가슴에 꽂아주엇더 합니다。

이러케 지거한어머님을 잃은안나는 그때부터 어머님의 존재가 얼마나 거룩한것을 선전하고 어머님의 희생적사랑을 자식들이 늘더기억할 필요가잇다는 선전을 베이보선전하엿더니 이뜻에 공명한 미국에서 왕와나메이커씨가 一九○八년 五월 둘재일요일에 수천의 청년들과 그어머니들을모아노코。어머니날이라는 명목으로보기 시작하게되엇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신사람은 붉은카네숀 도라가신사람은 흰카네숀을 가슴에장식하엿더랍니다 오늘「어머니날」이라면 누구나 이카네숀을 연상하는것은 그때 우연히 안나양이 카네숀을 썻으므로 그것이 습관된것이오 아모다른 의미는 없는것입니다。그러하야 一九一四년부터 합중국대통령이 五월둘재일요일을어머니날로정하야 지금까지 지켜오는것입니다 조선에서도 [illegible]년부터 이수일을식히게 되엇으니 사실을사람으로한번 기억할만한 날입니다。

어려분도 이날만은 어머님을도읍고 단하로만이라도 어머님의할숨을 잘들도록 주의하야 참으로「어머니날」을 의미잇게 보내십시다。

幼年童話 「운중」이와 까치알

★…盧良兒

「운중」이는 고양이처럼 취미하면 양양이 나무에 기여올나 가기를 썩 잘합니다。

그런데 하로아츰은 운중이가그전처럼 학교에 가려고 다른동무들과함께 또 책보를 둘러메고험함한 숙동방을 지나노라니까

「깟, 깟, 깟!」

아츰인사나 하는것처럼 신작로버들나무 꼭대기에 놉다랗이 앉어잇는 까치둥지에서 까치가 부르여나오며 한바탕 짓어댓습니다。

그소리를 누구보다도 귀에서중은 운중이는 얼른 나무꼭대기를 쳐다보다가 별안간 다른 아이들 보는데서 저가(자기가)나무에 올을다는 자랑을 하고싶은 생각이 벌럭나서

「얘들아—」

하고 우선 폴레폴레 앞서가는 다른동무들을 큰소리로 불럿습니다。

「왜—」

「우리—저—우에잇는 까치알 내 가지까?—」

운중이가 손구락으로 가르치는 나무를 다른아이들이 처다보니까 하늘에 찌를것처럼 쑥 뻗어 올라간 후리후리한 왜버들나무 빼죽대기끝에 큰둥구리 만큼 달려잇는 까치둥지가 퍽아득하게 보엿습니다。

그래서 그애들중에 누군지

「저거태길 무슨수로올라가니? 얘—쌔니 잘못하다 떠러지문목어지 부러저죽을라구…」

겁부터 미리집어먹은 대답을하는 소리를듣고 운중이는 옆에 벗어나서

「시! 조까짓을 못올라가—내올라가 끄내게 느이덜 볼테냐?」

하구 아조 뽐냇습니다。

그리구는 벌서 들러멘 책보를 글너서 잔디밭에 와 팽개치고 고무신이며 버선도 죽죽 버서서 내던지고 손바닥에다 침을 두어번 ○○뱉드니 까치둥지잇는왜버들나무로 역시 고양이처럼 앙금앙금 기여올나가기를 시작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아이들은 어느듯 그나무를 삥둘너싸고 서서 모두 고개를 하늘로향해 재끼고 운중이와 기여올나가는 모양만 엄전히 쳐다보구 잇엇습니다。

그동안에 운중이는 벌서 때 [illegible]이 기여올나갓는데 어디서 까치 한마리가 또 날나와서는 두마리가 이가지 저가지로

「깟, 깟, 깟」

번석을히며 짓어대면서 날아왓다 날아갓다 야단이엇습니다。

아마 둥지에서 먼저뒤여나온까치는 새시까치고 나중에 날아온까치는 새서방까치인 모양인데

「남의집에 무엇하러 올너오느냐?」

구 자꾸만 얘기를 하는것이 아리지 안엇습니다。

이뿐 귀에는 다만 「깟깟, 깟」노는둘로밖에는 들리지 안엇습니다。

필정 운중이는 거진 까치둥지 밑에까지 올라갓습니다。그럴스록 까치들은 더욱 열이 나서 미친것처럼 짖어댓습니다。

그래도 운중이는

「이놈어까치들 왜그리짖니?」

하고 중얼거리면서 더 바싹 올라갓습니다。

나뭇밑에 서서 처다보는 아이들은 깜아—케 기어올라간 운중이가 장하게 생각되는것보다두

「저러다 혹시 잘못해서 떠러지면 어쩌나!」

하구 어○지 불안한 생각까지나서 아슬아슬한것을 참고 잇엇습니다。

얼굴만백인종인 남미의원숭이

시상이 · 처七촌사냥

자세히 보십시오 무슨 즘승인가 남아메리가 까아나에서 나는원숭인데 얼굴만은 백인종과같이 히고해왓하나 전신은 검은털로 해뒤덮혓는데 더구나 송지는 비와같이 되엇습니다。

보기에는 성질이 무악하게생겻으나 실상은 퍽 순한데 남미 동북편에서는 여간한인가가 아니랍니다。신장이 겨우 一척七, 八촌밖에 안된답니다。

最初의發明家 알키메데스(下)

李東民

「어제밤에 『알키메데스』가 연구하다가 뜻이지안은 죽엄을 하엿다고 하시엇지요。왜 그랫읍니카」

숙자는 눈을 깜박 깜박 하면서 선생님께 무럿습니다。

「옳다 이가튼 『시라크사』와 평화스러운 곳을두면서사는 그곳 회는五十년동안이나계속되엇단다 그사이에 『알키메데스』는 여러가지와 발명을하여 사람을 놀래게하엿다。그가 七十세되는해에 로—마는 처음어왓엇다。전쟁이 날때에도 『알키메데스』는 『시라크사』를 구하기위하야 전쟁에쓰는 반들무기를 발명하엿다。석궁(石弩)이라는것을 만드러 돌을쏘고 기중기(起重機)를발명하여 성을 너머오라는 『로—마』병정에게 五六十관이나 큰돌을 쏘아 부러치엇다。『로—마』병정들은 여간 위협을 받은것이 아니엇다。그러나 『로—마』의 병사들은

「이것이 모다 『알키메데스』의 한일이라」

하고 무서워서 도망을하든것이당 그러나 『시라크사』는 오래동안 『로—마』병사들에게 시달임을 받는동안에 버릇것이 다 떠러저서 그만 항복하고말엇다。

로—마의 대장 『말케스』는 적(敵)이라하지마는 『알키메데스』는 열처와마어 천재(天才)다。만약그를 한다드라도 죽여서는 안된다고 병사들에게 일러두엇다。

『시라크사』의 호위병은 옴도 몸소리가 가득찬것이엇다。바로 지금은 봄볕에 싸여 졸듯하는 우렁탄 백발이 혼날리는 할아버지한분이 정신없이 모래우에다 기하학(幾何)와 그림와 원(圓)과 삼각(三角)을 그리면서 생각하고 잇엇다 때마츰 로—마의 병사가 이광경을보고 『알키메데스』나 아닌가 하고 좇아가서

「그대는 누군가?」고 무럿스나 아모대답도없이 다만 모래우의그린것을 보고만이 잇엇다。

「왜 대답이 없느냐?」 반아대답을 하지안흐면 죽이겟다고, 올러도 보앗으나 여전히 태연하엿다。한참만에 고개를 들면서 점잔이 말하기를

「나는 너이들에게 아무 상관없는사람이다 나한 이모래우에 그린것을 지워서는안된다」

「무엇이어째!」 소리를 지르면서 한병사는 칼가로 창으로 노인을 찔럿다。

「선생님! 그노인이 『알키메데스』선생님이 아니여요」

「그러탄 그노인은 바로알키메데스선생님이엇다。그무서운 전쟁이 이러나는데도 그는 연구에 열심이엇다。『알키메데스』가 비참한 죽엄을 하엿다는 슬픈소식을들은 로—마의 대장 『말케스』는 끝없이아까워하고 재쓸이가 된 『시라크사』의 평장한 무덤을 만드러그들 조상하엿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퍽 재미잇엇지! 경재야—」

구들은 선생님께 공손히 인사를하고 나왓습니다。

童謠 병아리

河東 崔宇學人

삐요삐요 병아리
노랑노랑 병아리
옹망졸망 사이조흔
여러형제가
이리기웃 저리기웃
기웃거리며
엄마엄마 따라서
놀러갑니다

삐요삐요 병아리
복실복실 병아리
옹망졸망 의조흔
여러형제들
이리댓둥 저리댓둥
댓둥거리며
삐요삐요 노래하며
놀러갑니다

라디오 JODK

五月九日(土)

▼午後六時三十分 講演指導(敎育레코—드併用)『第三回』 解說 延禧專門敎授 鄭寅燮
▼七時 時事解說 金璋煥
▼八時 農村講座(二)『五月의治蟲』 第二高普 金輝丘
▼八時三十分 小女歌劇—東洋劇場으로부터舞臺中繼— 『마음의등불』全一景
配役 내모리노…龍子 니—나…龜子 아데이나…淸子 제로나…光子 博士…蕙子 書記…蘭子 酒店主人…英子 색시—…松子 同二…淑子 同三…菊子 同四…美子 出演 裵龜子歌劇團
▼九時十分 大琴獨奏 一、敎讀 二、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鼓手 朴鍾基 朴相鮮
▼九時三十分 우스운이야기 [illegible] 崔星源

五月十日(日)

▼午前六時 라디오體操
▼一時 野球試合實況(邦語)—京城그라운드에서— 『府廳對遞信局』『鐵道對殖銀』
▼四時二十分 關西大角力實況(邦語)—京城旭町一丁目角力場—
▼六時三十分 하—모니카合奏 알파하—모니카빤드
▼六時五十五分 心田開發
▼八時 伽倻琴倂唱 一、短歌「大丈夫」二、[illegible] 伴奏 韓成俊 [illegible] 吳太石 盧基南
▼八時三十分 流行歌 一、그리운浦口 二、放浪의그리움 三、사랑의大圃 四、華春 五、江南의夜曲 六、부서진꿈 崔南鏞 伴奏 DK管絃樂團
▼九時 歌曲 一、界面頭擧 [illegible] 五、編 洋琴 金美花 [illegible]
▼十時 朝鮮文藝放送 京城으로부터 『南道雜歌』 一、興盛 二、새타령 三、六字배기

第一放送

▲午前九時 野球試合實況(神宮)▲九時三十分(東)新綠の東京(實況)—上野動物園より中繼—▲十時(仙)日曜禮拜—仙臺市東北學院禮拜堂より中繼—▲十時四十分(京)講演 日本の湖沼とその生物 ▲十一時一分 講演 菌に關する常識 ▲午後○時二十分(東) 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リーグ戰 ▲○時五十分(滿)滿洲旅行案內(各局リレー) ▲一時二十分(東)ラヂオコメディ かなりや軒 ▲二時五分(東)淸元小曲 ▲二時三十分 新人洋樂コンサート ▲六時(大)舞踊傳 ▲七時三十分(名)浪曲 だより露山の夕(藤森より) ▲八時(大)漫才 ▲八時二十五分(東)長唄 四季の花里 ▲八時五十分(東)浪花節 小金井小次郎

第一放送

▲六時(東)なぜなぜ座談會(第三回)▲六時二十五分 心田開發講話 イエスの宗教(二)▲六時五十五分(東)カレントトピックス▲七時三十分(東)舞踊劇—歌舞伎座より中繼—▲八時三十分(東)自作朗讀 久米正雄

五月十一日(月)

▼午前六時 라디오體操
▼午後零時五分 映畵이야기『그대의그림자』 李昌興
▼三時十五分 兒童時間『어머니날의由來와意義』 田榮澤
▼六時三十分 少女劇 『봄!봄!봄!』 全一景 —朴興民作— 指揮 朴興民 效果 尹長燮
▼七時 產業뉴스에 繼續하야 經濟解說
▼八時 講演 『朝鮮樂器이야기』(一) 申曼均 李常甲
▼八時三十分 時調 一、平時調 二、辭說時調 三、지름 尹從善
▼八時五十分 (東)獨唱과音樂 (近代及現代音樂 定期演奏第五回) 獨唱 太田綾子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나코라이, 시페르부랫트
▼九時三十分 一、關山戎馬 二、平熟心歌 三、역금歌心歌 四、孔明歌 五、긴아리 六、霽歌 崔貞子 金眞紅

지하실 (六四)

李無影 作 · 鄭玄雄 畵

똘똘이가 이러케 설게 울고 잇을때 늙은청인파 송굿에 찔린 청인은 똘똘이 죽일 궁리를 하고 잇섯습니다。

「어보게 똘똘이만 죽일게 아니라 저놈의 노파도 그냥 두어서는 안되겟네。나중에 무슨소문이 나든지 하면 어떠하나。」

하고 늙은 청인이 말햇습니다。

「그리치만 지 노파는 죽이지는 말고 게집애들은 더러구 본국으로 보내든게 조켓지요。」

「그러치만 그러케 할수가 잇나。속이야지 그러면 노파더러 똘똘이를 가서 지기라고하지요。그랫다가 잇다 밤중에가서 다 없애버리면 안됨니까。」

「그래。그러면 자네한테 이걸줄께니 잘처치를 하게。」

하고 늙은청인은 지전한장을 주엇습니다。조곰 잇다가 송굿에 찔린 협상구진 청인이 노파방으로 왓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오。」

「할머니가 갓서 똘똘이자식 어디로 도망햇나 잘 지켜봣어! 알어햇소?」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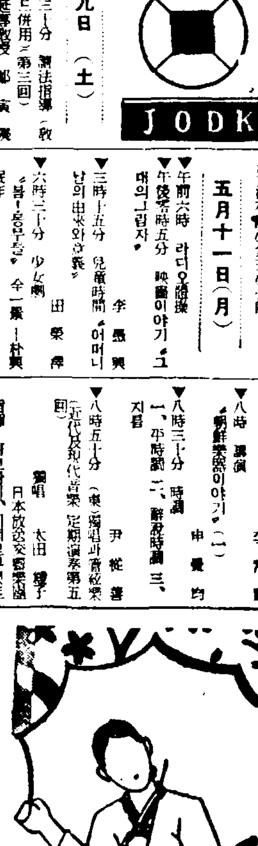
「똘똘이 노첫서 할머니 돈이 안주엇서!」

「노치긴 왜 노처。그러니 잇다가 밤중에일을 치러야지…」

「글리치!」

청인은 나가고 노파는 초와 성양을 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갓습니다。

지하실은 물속같이 어두엇습니다。



꽃피는봄날에 부인병의서름을 누구의게하소연하리요!

임신못하시는분도부인병이원인 엇더케하면 속히곳칠수잇습가

[illegible]

병원치료와 똑같은치료를 집에서할수잇다

病院治療의家庭化

帝大病院·赤十字病院에서쓰는약으로 부인병이곳낫는 와세돈球

[illegible]

어느가정에도유익한 가정위생지식

十二球—一圓二十錢 廿四球—二圓三十錢 卅六球—三圓四十錢 (病院用) 一四四球—十二圓

日東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三一九四三

京城 新井藥房, 木村藥房 釜山 大黑南藥房 전조선약방에서판매합니다

今日의 經濟話題

産金買上價格 引上의 諸根據 (三)

金買上價格의 引上은 [illegible]

米穀關係三法案 衆議院에 遂上程

議場空氣자못緊張

【東京議會電通】三日間에 亘한 [illegible]

各政黨의 態度 無條件으로 贊成

▽民政 [illegible]

▽政友 [illegible]

▽國同 [illegible]

三月末米貯藏 百九十萬餘石

水稻耕作 面積增加?

米價는 昨年以後 [illegible]

統制經濟 斷行

諸缺陷弊害一掃

▼廣田首相이言明

金融情勢의 趨移

日銀正副總裁說明

地方稅制整理 大衆課稅는回避

稅制整理案의 要綱

朝銀地金買上 每日七、八萬圓

外國爲替先物停止

米日爲替暴騰

佛銀行株暴落

金禁輸令發布後로

大連組銀利下

【大連八日發同盟】大連在滿日本銀行에서는 [illegible]

【雙眼子】

土曜 株評

다시迷徨?

過度悲觀을目前警戒

今日의市況

五月九日

株式 (單位十錢)			正米 (三等單位)		
朝新	前場	比較	京城	時勢	比較
東新			仁川		
期米 (單位錢)			商品 (單位十錢)		
仁先			綿絲		
大先			人絹		
正租 (仁川)			砂糖		
京東北			고무原料	五十二錢	

時勢와 市況

株式 商狀 强含

前場採合

朝取短期前場步調

雙方相峙 今後가可觀

後場 休會

期米 高含 保合

前場頑强 前場保勢

後場同調

仁川人氣頑强

東新은아직도 큰活躍難期?

財◇海◇餘◇波

朝鄭增資

東株上場株時價 比前月現著値上

東京國債市場

實物賣買價前場

米豆餘塵

動機待의增面

內外金銀時勢

五月九日

海外金銀 八日

倫敦金塊 一오스 七磅五片半

對孟買朝鮮銀建

倫敦銀塊時勢 二十片四分一

紐育銀塊時勢 四十四仙四分三

東京金銀 (新電)

京城金銀

堂島前場情報

米正 下落種 保勢

京城保合

仁川閑況

群山手堅

大邱不動

釜山不變

木浦强調

株式 九日

海外經濟 九日

金融 八日

商品 九日

雜穀 九日

朝米取 株 光皿 康益夏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